

‘보해 종합기술원’ 광주 이전

창해연구소와 통합...기술력 확보 장성공장 연계 제품개발 시너지

보해양조(사장 임효섭)가 광주에 광주·전남 최초로 종합 주류·BIO사업 연구소를 개원했다.

17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이날 상무 지구 시청로(치평동) 광주사옥에서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주류·BIO사업 연구소인 보해종합기술원(원장 최기욱) 개원식을 갖고 보해의 새로운 도약을 다졌다.

이번에 광주에 등지를 틀게 된 보해종합기술원은 기존의 경기도 용인에 있던 보해종합기술원을 사업화 연계 목표(R&D)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제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사옥으로 확대 개원하게 됐다.

따라서 보해양조는 장성에 위치한 생산현장과 보해종합기술원이 함께 광주·전남에 위치하게 돼 기술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생산현장과 조율을 통한 제품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바이오 에탄올 등 바이오 작물을 이용한 핵심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창해연구소 직원을 포함한 R&D 전문직원 20여명이 공동연구를 통해 제품의 기술적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기욱 보해종합기술원장은 “보해양조의 새로운 주류 제품 개발과 창해의 바이오 신에너지 사업관련 연



보해양조는 보해종합기술원을 광주사옥에 확장 이전함으로써 기술적 네트워크 강화와 제품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개발을 광주지역에서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동력 거점을 삼게 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공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해종합기술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창해연구소와 함께 제품 경쟁력을 위한 명품주류 개발, 품질혁

신 및 제품 가치 증대라는 주류분야 전략적 목표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바이오(BIO) 사업등의 기술 혁신 등으로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세계적 기술과 생산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 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대백, 명절 소외이웃에 ‘사랑의 쌀’

현대백화점 광주점 점장(이체식)은 18일 북구청을 방문, 북구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쌀 900kg 전달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혈액암 돕기 헌혈캠페인과, 폐 휴대폰 수거 캠페인, 청각 장애우 돕기 캠페인, 북구지역 교복지원과 사회복지

재단, 애육원등에 학습기자재 지원등 1000여 만원의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올해에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 행사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하이트진로 신년회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김인규는 1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종합주류도매사 대표 및 광주·전남지역 체인사 대표 130여명을 초청해 2012 신년회를 가졌다.

〈하이트 진로 제공〉

대학생 학자금 대출 200억 출연

생보업계 3월2일까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18일 사회연대은행과 위탁 약정을 맺고 200억원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준비에 들어갔다.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았으나 상황이 어려운 대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환 대출은 1인당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연 3.9%다. 전환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20일부터 3월 2일까지다.

상환은 최대 3년 거치, 최대 3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군 북부 동안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위원회는 고금리 학자금을 대출받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먼저 한 뒤 전환대출자에게 추가 학자금 대출도 할 예정이다.

연협뉴스

위조지폐 98%가 5천원·1만원권

지난해 적발된 위조지폐(위폐) 1만7장 중 98%가 5000원권이나 1만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내놓은 “2011년중 위조지폐 현황”을 보면 한은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국민이 신고한 위폐는 모두 1만7장으로 2010년보다 7.6%(709장) 늘었다.

종류별로는 5천원권이 5573장(55.7%)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권 4232장(42.3%)이다. 5만원권과 1000원권은 각각 115장(1.1%), 87장(0.9%)에 그쳤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00원권 45.0%, 1만원권 43.2%, 5만원권 3.6%였다. 5000원권은 9.7% 줄었다.

한은은 “2011년 상반기에 은박지로 홀로그램을 만들어 부착한 1만원권 위폐가 대량 발견됐다”고 전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은행권 100만장당 위폐는 2.6장꼴로 발견됐다. 금융기관·국민이 신고한 위폐가 7348장(73.4%)였고, 한은이 발견한 것은 2659장(26.6%)이었다.

연협뉴스

전력난 지속...화력발전소 건설 건의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4>

화순화력발전소 건립 운동 ④

전시에도 광주·전남 배전량 수요량의 20%도 안돼

화순 입지 탁월...탄광 전력화되면 석탄 3배 증산

▲목매인 전력증대 요청

당시 광주·전남의 배전량은 수요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장 부족한 전력은 관계당국의 추가배정을 기대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 때의 건의서들을 보면 전력난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1953년 1월13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상공부장관에게 보낸 건의서를 보면 ‘1952년 4·4분기 관공용계획 배전할당량 590kW로는 비상용배전도 어려울 터에 오히려 3·4분기의 690kW보다 줄어들어 특수산업전력에 일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추가할당을 호소했고, 1954년 11월23일자 상공부장관과 남선전기(南鮮電氣·한국전력의 전신) 소장에 보낸 건의서에서는 ‘본도의 야간전등용 전력소요량은 최저 1만kW인데 현재의 지령량은 7000kW에 불과한데다 발전소 불시중전 중지자 극심하여 암흑세계와 같고 동력용(산업용) 수요량은 9500kW인데 지령량은 4200kW로서 기업체에 고충을 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화순 화력발전소 건설 건의 그러나 광주·전남의 이같은 전력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정으로는 정부 차원의 전력 증배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산업전반이 제기불능의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 화력발전소의 건설이었다.

1951년 2월 수복직후 구국총력 전라남도위원회와 전라남도상공회의소(당시는 공법인이 아닌 민간단체) 등 8개 기관·단체의 공동 명의로 된 전제 복구에 관한 광공업분야의 건의서를 보면 전력난 해소의 건설을 건의하면서 이 지역이 가장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화력발전소를 화순에 건설할 경우 발전용보일러 연료인 무연탄을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둘째로 발전소의 공업용수에 있어서도 건설후보지의 역내에 유수량이 충분한 하천이 있어 양수에 지장이 없을뿐만 아니라 전제량과 월남동포 등 피난민의 정착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울러 화순탄광까지 철도인인섭이 부설돼 있어 건설공사 및 발전소운영에 별도의 기반시설투자가 필요없다는 점도 이점 중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력발전소는 화순탄광을 비롯한 주변일대 군소탄광들의 전력화나 소요전력

확보를 위한 채탄용 자가발전소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화순탄광을 중심으로 약 5km반경에는 삼흥사, 성광, 운남, 송곡, 능주, 청풍 등의 탄광에 총 6500만t의 연탄 매장량이 확인되고 있었으며 6·25 한국전쟁 직전까지 이들 탄광에서 연간 15만4931t을 생산하고 있었다.

당시 광공업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 탄광에 채탄용 전력이 공급될 경우 생산과정의 효율화로 당장 320%를 웃도는 51만3000t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해마다 연탄 파동으로 불살을 앓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경제상황은 당장 급한 탄광의 자원 개발은 물론 채탄용 전력생산마저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건의서가 만들어진 1951년은 하루가 다르게 전선의 긴박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산업 폐쇄의 민간산업의 전제 복구나 투자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현지의 이같은 다양한 사정이나 광주상공회의소의 절박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UN의 군사원조를 총괄하는 한미경제안정위원단의 반응은 그저 냉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화순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전남도민의 열망은 그 뒤 전후의 혼란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불씨를 이어갔다.



위중 (연문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 해야”

국세청

국세청은 올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명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신고대상자는 6만9000명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을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특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150여가지의 특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특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타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이태리가구 쇼핑몰

www.100424.com (천사24닷컴 2월10일 까지 임시오픈)

신상품 입점 : 100~300만원대 식탁/좌탁, PC책상, 거실TV장

1. 베로나 유화꽃식탁 4인세트 쇼핑몰가 20% 295만원 최종가=50%

2. 베로나 유화꽃좌탁 쇼핑몰가 20% 148만원 최종가=50%

(확장형 160+40+40×85cm 양쪽각 40cm 확장이 됩니다. 100% MADE IN ITALY)

100424.com 홈스퀘어 1899-0240

홍은 수입원/직수입→도매가 판매

서랍안이나 가죽이 역한 냄새가 나면 독성있는 중국산입니다. 전국 고급가구의 90% 이상은 중국산입니다.(수입신고서 확인)

이태리가구 전문 빌딩 400평 매장

동구 광동 58-15 창동로터리 홈스퀘어스 가구빌딩